

# 『청맥』의 소설에 나타난 리저널리즘과 (국가)폭력의 젠더

김복순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목차

- 1 ‘상시화된 예외상태’와 ‘국가폭력의 백화점’으로서의 50-60년대
- 2 ‘아시아 리저널리즘 제5계보’의 소설적 ‘방법’과 젠더
  - 2.1 군대·경찰 등 공권력의 폭력과 광기의 남성젠더화
  - 2.2 ‘국가폭력으로서의 5.16’과 민중의 여성젠더화
  - 2.3 국가보안법과 ‘보복하는 여(남)성’의 호몰로지
  - 2.4 민족주의의 폭력성과 ‘새 사회 원리’의 남성성
  - 2.5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폭력 문제와 가해/피해의 역전된 성적 은유
  - 2.6 탈식민 노동자 연대와 노동의 남성젠더화
- 3 대항공론장으로서의 『청맥』의 소설: 민족적 리얼리즘의 성취  
 〈부록〉 『청맥』 소설 목록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1046563). 이 글은 3년 과제 중 3차년도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청맥』의 소설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이다. 소설은 모두 37편으로서, 50-60년대 사회에 만연한 (국가)폭력 및 사회비리, 부패에 대해 본격적으로 해부·고발한다. (국가)폭력에 대한 ‘질적 변환’ 및 ‘양적 증가’를 보여주었으며, 당시 아시아·아프리카 리저널리즘의 한계로 지적되던 ‘민주와 괴리된 독재’ ‘새로운 민족주의로서의 독재’를 비판하면서 제3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50-60년대 극우반공체제의 확립과정과 국가폭력 형성의 호몰로지를 보여주면서 민족적 리얼리즘의 성취를 확인시키고 있었으며, 문학비평과의 정합성도 확인되었다. 특히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새로운 시(국)민성이 ‘여성성’을 통해 담보되는 특징을 보이지만, 아직 ‘새 사회 원리’ ‘노동’ 등은 남성성에 기반하는 등 착종된 젠더의식을 드러냈다.

자유·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 국가폭력이 아닌 법치, 인류애라는 조국애, 물화가 아닌 자본주의 등이 『청맥』의 소설이 피력하는 바, 아시아 리저널리즘 제5계보의 소설적 형상화에서 요청된 전망의 내포이다. 이것이 제5계보의 차별성이자 특징이었다. 하지만 아직 민족주의의 폭력성을 용인하고 반공 냉전으로 육화된 ‘보복하는 여성’을 제시하는 등 진정한 탈식민적 성찰로는 한계를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청맥』의 소설로 인해 60년대 소설사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 이미 『창작과 비평』의 업적으로 평가된 민족주의론, 리얼리즘론을 선취하고 있었다.

국문핵심어: 제3방안, 반동정신, 민족적 리얼리즘, 아시아 리저널리즘, 대항공론장, 국가폭력, 경찰 폭력, 군대 폭력, 민족주의의 폭력, 국가보안법, 간첩, 빨갱이, 아비살해, 광기, 5.16, 민중, 불온, 신도덕, 보복하는 여성, 탈식민, 노동자 연대

### 1 ‘상시화된 예외상태’와 ‘국가폭력의 백화점’으로서의 50-60년대

서구에게는 냉전 시대가 ‘장기 평화’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아시아·아프리카에게는 탈식민화를 위해 내적·외적 전쟁도 불사해야 하는 시대였다. 탈식민화 및

해방·자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또 다른 보편’ 및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변혁적 모색을 다양하게 펼쳐 나가야만 했다. 따라서 강대국(의 전략)과 협력·포섭·충돌·길항하면서 트랜스내셔널/로컬의 형태를 띄게 된다. 냉전이란 ‘세계적 차원의 현상’은 제1세계가 주도적이기는 했지만 일방적 관계라기보다 다차방정식 형태의 그물망에 가까웠다. 이 과정에서 제1세계의 위성국가가 출현하기도 했지만, 제3세계 공산주의가 대두·몰락하기도 했으며, 아랍에서와 같이 새로운 종파의 혁명이 대두하기도 했다.<sup>1</sup> 냉전 시기를 양극적이라기보다 ‘3극적’<sup>2</sup> 체제라 보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세계사적 지형 변화에 따라 국내외적 상황도 급변하는데,<sup>3</sup> 해방 후 다양하게 모색되던 탈냉전지(知)는 4.19를 거치면서 새롭고도 역동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한다. 당시 제3세계는 ‘새로운 민족주의로서의 독재’를 포함해 아시아 리저널리즘을 추동하는 등 여러 형태로 분기하면서 재편되어 가고 있었다.<sup>4</sup> 제3세계는 각국에 적합한 ‘자기혁명’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리저널리즘(region-alism)<sup>5</sup>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국면에서 다양한 탈냉전지(知)를 추동하면서, 트랜스내셔널과의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제3세계의 해방’을 실천하는 동시에 세계냉전체제로부터의 이탈을 모색하는 일련의 ‘방법’이다.<sup>6</sup>

- 
- 1 폴 토마스 체임벌린, 김남섭 옮김, 『아시아 1945-1990』, 이데아, 2023, 5-16쪽.
  - 2 John Lewis Gaddis, *We Now know*, Oxford Univ. Press, New York, 1997, p.293.
  - 3 해방후 60년대까지의 국내외적 맥락에 관해서는 김복순,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특집 및 권두언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0호, 2020, 225-270쪽. ;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문학비평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3호, 2021, 294-339쪽, 참조.
  - 4 령유, 김수현 옮김, 「복수성 관리하기-냉전 초기 싱가포르 주변의 정치학」,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1』, 현실문화, 2008, 125-147쪽.
  - 5 마루카와 데쓰시, 백지운·윤여일 역, 『리저널리즘』, 그린비, 2008, 17-56쪽.
  - 6 트랜스내셔널/로컬 및 『청맥』의 기본 서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김수현, 「『청맥』지 아시아 국가 표상에 반영된 진보적 지식인 그룹의 탈냉전 지향」, 『상허학보』 제39호, 2013, 295-336쪽.; 박연희, 「『청맥』의 제3세계적 시각과 김수영의 민족문학론」, 『한국문학연구』 제53호, 2017, 283-320쪽.; 박태순·김동춘, 「통혁당 사건과 『청맥』」,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215-240쪽.; 이동현, 「1960년대 『청맥』 지식인 집단의 탈식민 민족주의 담론과 문화전략」 『역사와 문화』, 제24호, 2012, 3-29쪽.; 김복순, 「『청맥』에

리저널리즘의 재편과 관련하여 『청맥』이 제시한 것은 ‘제3방안’<sup>7</sup>이었다. ‘제3방안’이란 ‘각국의 특정한 상황에 부합하는 특정한 방안’으로서, 진보에의 새로운 도전과 이 도전을 수용하고 성취해 줄 방법으로 설정되었다. ‘알타체제를 거부’하고 당시로서는 금기시되었던 자주·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있었던 바,<sup>8</sup> ‘저항적 아시아민족주의’로서 반동정신<sup>9</sup>을 반영하고 있었다. 『청맥』 역시 ‘발전론의 신앙’에 강박되어 있었지만,<sup>10</sup> 당대의 여타 발전론과 ‘달리’ ‘빵과 자유’를 동시에 요청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성격을 강조했다며, ‘냉전 자유주의’ 및 ‘좌우 양쪽의 전체주의’,<sup>11</sup> ‘가짜 민주주의’를 경계했다. 조국통일과 빈곤탈피를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완전 자주·자립을 설정했을 때 통일이 가능해지며, 빈곤탈피는 그 결과 상정될 것이라 보았다. 즉 최종 심급은 ‘통일’이었다.

이러한 『청맥』의 입장은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제5계보로 분류되었다.<sup>12</sup> 제

---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특집 및 권두언을 중심으로], 앞의 글.; 김복순,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문학비평을 중심으로], 앞의 글, 참고.

- 7 이에 대해서는 『청맥』 14호 「독자의 말」, 231쪽.; 김복순,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특집 및 권두언을 중심으로], 앞의 글, 참고.
- 8 알타체제는 주권, 완전자주, 자립에 의한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신식민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만수, 「3·8선 기원의 재검토」, 『청맥』 제20호, 1966.8, 100-111쪽.; 박동운, 「통일의 조건과 전망」, 『청맥』 제11호, 1965.8, 22-32쪽, 참조.
- 9 장세진, 「안티테제로서의 반동정신과 한국의 아시아 상상」, 『사이間SAI』 제15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135-169쪽.
- 10 질베르 리스트는 ‘발전’이 서구에서 ‘신앙’으로 자리잡았다면서, ‘저발전’이란 용어의 혁신으로 발전/저발전의 이분법적 세계관이 등장했으며, 이는 세계를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고 보았다. 질베르 리스트, 신해경 옮김,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 책, 2013, 123-126쪽.
- 11 김복순,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문학비평을 중심으로], 앞의 글, 296-299쪽.
- 12 네 가지 ‘아시아 리저널리즘’은 1) 반공 우선성 2) 발전론 우선성 3) 우선성이 작동하지 않은 채 냉전과 발전론이 결합한 경우 4) 중립주의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복순, 『『사상계』 기행문에 나타난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재편양상과 제건의 젠더』, 『여성문학연구』 제3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217-260쪽, 참고.

5계보에는 반제 반식민으로서의 통일과 ‘자유로서의 발전’<sup>13</sup>론이 결합되어 있으며, 다원화 및 ‘개인적 자유’가 강조되어 있다. 반동회의에서도 ‘개인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자유’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정치적 권리로서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별다른 토론을 진행하지 못했는데,<sup>14</sup> 『청맥』은 반동정신으로부터 한 걸음 더 진전해 있었다. 이 점이 제5계보의 결정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제5계보’의 특징, 즉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주체성’으로 요약되는 제3방안이 소설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었을까. 문학비평<sup>15</sup>과의 이론적 정합성을 보이는지, 그 구체적 양상은 어떠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검토할 소설은 모두 37편이다.<sup>16</sup> 『청맥』은 27호로 폐간될 때까지 매호 1개-3개의 소설을 실었다. 소설이 실리지 않은 경우는 12호와 24호 뿐이었고, 24호에는 대신 희곡이 실려 있었다. 창간호부터 22호까지는 ‘소설’이란 명칭이 아니라 ‘창작’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작가별로 볼 때 백인빈, 오유권, 박경수, 김승욱, 이호철, 김용운, 오영석 등이 2회씩, 남정현, 이범선, 하근찬, 이청준 등은 1회씩 기고하였다.<sup>17</sup>

『청맥』의 소설에 관한 논문은 여태까지 단 한편도 제출된 바 없다. 하상일이 「지식인의 현실참여와 『청맥』」이란 논문에서 5-6줄짜리 개략적인 인상비평을 보여준 것이 전부이다. 하상일은 『청맥』의 작품경향에 대해, “특정 이데올로기에 한정되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자유당과 군사정권을 소재로 한 정치풍자 혹은 세태풍자 경향의 작품들이 있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

13 아마티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 개념을 원용한다고 할 수 있다. 아마티아 센, 김원기 역, 『자유로서의 발전』, 갈라파고스, 2013, 39-148쪽, 399-419쪽. 발전을 위해 ‘독재’ 등 ‘부자유’의 원인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당시에 더러 제출된 바 있다. 김복순,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특집 및 권두언을 중심으로」, 앞의 글, 239-242쪽, 참고.

14 오드 아르네 베스타, 오강준 옮김, 『냉전의 지구사』, 예코리브르, 2020, 176쪽.

15 이상 『청맥』의 문학비평과 관련해서는 김복순,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문학비평을 중심으로」, 앞의 글, 294-339쪽 참고

16 소설 목록은 논문 말미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17 소설 작가의 경우, 정치, 경제, 문화기획과 달리 통혁당 관련자가 없고, 타 잡지 투고자와 대동소이한 점이 발견된다.

다”<sup>18</sup>고 평가하였다. 이 짝막한 언급 외에 『청맥』의 소설이 분석된 바는 없다. 젠더 연관 논문도 따라서 한 편도 없다.

『청맥』의 소설은 60년대 그 어느 잡지에서도, 그 어느 작가도 보여준 적 없는 놀라운 차별성을 드러낸다. 그 차별성이란 ‘국가폭력’을 비롯한 각종 폭력 및 사회비리, 부패에 대해 본격적으로 해부·고발한다는 점이다. 해방 후 냉전의 시작은 잔인한 내전과 예외적 형태의 정치폭력을 특징으로 하는 ‘억제되지 않은 현실’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했으며, 조르조 아감벤이 ‘예외상태’라 부른 것, 즉 법치의 유예와 유사한 영속적 조건을 초래했다. 정부수립 전후 국가보안법(1948·1949·1950)과 계엄법(1949), 한국전쟁 발발 직후 선포된 비상사태 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1950), 5.16 및 국가비상사태선언(1971), 유신체제(1972) 등은 ‘상시화된 예외상태’를 노정하였다.<sup>19</sup>

『청맥』의 소설은 이러한 ‘상시화된 예외상태’를 ‘국가폭력의 백화점’<sup>20</sup>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과 고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판과 고발은 『청맥』이 지향하는 바의 민족적 리얼리즘론, 참여문학론, 그리고 제3방안의 모색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러한 지향점을 모색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전망이 여타의 잡지에서 보기 힘든 『청맥』의 두드러진 차별성이다.

근대 국가는 그 자체로 ‘합법적 폭력 기구’(K. Marx), 또는 ‘폭력을 독점하는 기관’(M. Weber)이라 언급된 바 있고, 근대성 또한 ‘보편을 가장한 폭력’으로 이해되면서 그것의 폐기처분이 역설되기도(M. Foucault) 하지만, 그 폭력은 국가가 공공성, 즉 질서와 평화 등의 상위 가치를 목적으로 삼을 때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이때 합법성 및 정당성은 국가 구성원의 합의에 기초한, 즉 공정한

---

18 하상일, 「지식인의 현실참여와 『청맥』」,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과 매체의 비평전략』, 소명출판, 2008, 93쪽.

19 김복순, 「국가비상사태선언 전후 ‘불평등 정당화/해소’의 방법적 전환」,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2집, 2016, 194쪽. ; 권헌익, 『또 하나의 냉전』, 민음사, 2013, 1-189쪽. ; 강성현, 「한국의 국가형성기 ‘예외상태 상례의 법적 구조」, 『사회와 역사』, 제94집, 2012, 87-128쪽. ; 조르조 아감벤, 김항 옮김, 『예외상태』, 새물결, 2009, 1-192쪽, 참조.

20 김동춘은 한국정치의 메커니즘으로 ‘국가폭력’을 설명한다. 김동춘, 『전쟁정치—한국정치의 메커니즘과 국가폭력』, 길, 2013, 73-74쪽.

절차를 통한 것일 때 획득된다. 통상적으로 권위주의적 정권 또는 파시즘적 통치 체제에서는 자신의 배타적 정치 권력 및 사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부당한 폭력을 일삼아 왔으며, 공권력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기본권을 묵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해 왔다. 그럼에도 이러한 국가폭력은 자칫 정당한 것으로 수용되기도, 정권의 목표 아래 새로운 정치철학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청맥』은 이러한 국가폭력에 대해 강한 비판적 시선을 견지한다. 정치폭력이 ‘공적 영역에서 특정한 사회적, 종족적, 경제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를 포함한 정치집단이 명시적 암묵적으로 행하는 강제, 강제하고자 하는 위협, 신체적 위해 등의 직간접적 폭력’이라면, 국가폭력은 이러한 정치폭력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국가폭력은 각종 차별과 불평등 관계를 창출, 정당화, 강화, 변명하기 위해 시도되며, 국가가 주도하거나 묵인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sup>21</sup>이다. 국가 또는 그 하부기관(군대, 경찰 등)이, 폭력을 행사하는 1차적 행위자로 등장할 수도 있고 표면화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실질적, 상징적, 유형, 무형의 폭력이 포함되어 있다.<sup>22</sup>

60년대 잡지 중 『청맥』만큼 국가폭력에 집중한 잡지는 없다. 본고에서는 이들 소설에서 (국가)폭력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리저널리즘과 민중, 리얼리즘론·민족문학론의 연관성 및 젠더 문제를 검토하고, 여성문학의 가능성도 추적하고자 한다. 탈식민 인식과 젠더와의 관계, 탈냉전 방법과 젠더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상화 되어 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젠더를 검토한다는 것은 당대의 제 모순(불평등)에 대한 인식 정도를 가늠하는 것이다.

『청맥』의 소설이 ‘제3방안’의 탈냉전지를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리얼리즘 방법과 민족문학의 성격은 어떻게 제시하는지 검토할 것이다. 작업 결과 『청맥』의 문학비평론과 소설의 정합성 여부도 확인될 것이다.

---

21 Nagengast, C., “violence, terror, and the Crisis of the States” i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23, p.144.

22 홍성흠, 「국가폭력 연구의 최근 경향과 새로운 연구 방향의 모색」, 『민주주의와 인권』, 제 7권1호, 2007, 7쪽.

## 2 ‘아시아 리저널리즘 제5계보’의 소설적 ‘방법’과 젠더

### 2.1 군대·경찰 등 공권력의 폭력과 광기의 남성젠더화

『청맥』이 가장 열정적으로 ‘고발’하고자 했던 영역이 바로 군대·경찰 등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국가폭력이다. 경찰 폭력은 「봄비와 더불어」와 「반짝이는 것과 빛소리」 등에, 군대 폭력은 「레바이아탄」과 「공황지대」 등에 대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마산사건조사위원회 속기록’에 기초한 「봄비와 더불어」(강용준, 9호)는 4.19의 도화선이 된 마산의거를 다룬다. 공공성을 벗어난 공권력은 곧 최대의 폭력조직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이 소설은 웅변적으로 외치고 있다.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마산의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3월 15일 아침 투표권을 찾으려고 따져 묻는 ‘몽고 아이스케키’집 아내의 항의로부터 시작한다. 투표권이 5명이나 있는 집에 한 표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아내는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어 있음도 강력하게 항의한다. ‘마산사건조사위원회 속기록’을 중간중간 보여주는 이 소설은 반장과 학교 선생님뿐 아니라 지사, 경무국장, 서장 등 국가의 행정기반 전체가 모두 부정선거에 결탁해 있음을 확인시킨다.

① 순수한 의미의 시민인 한, 그들은 아무 것도 믿을 수가 없었다. M당의 소리도 J당의 소리도....(중략)...그들은 여당도 야당도 아니다....(중략)...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조국에는 모두 마찬가지였으므로, 알맹이 없는 그들의 민주주의와 같은 것은 믿을 수가 없었다....(중략)...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민주주의가, 그 조국애가 실제로 만들어 놓은 온갖 현실적인 알맹이들이었다. (170-171<sup>23</sup>)

②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열은 조금씩 움직였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느새 그것은 거센 물결로 부풀어 있었고 지금은 그냥 노

23 해당 소설의 쪽수만 적는다. 소설의 경우, 이하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도같이 흘러가고 있었다. 함성은 천둥처럼 울려 터지고 부패와 온갖 비문명적인 처사에 대한 증오로운 고발은 그대로 비말이 되어 하얗게 부서졌다(…)그 욕지거리와 발악은 또 그대로 돌팔매가 되어 총성을 향해 무수히 날라갔다. 소방차의 호스가 째댄 물벼락은 온통 옷을 적시고 최루성개스는 자꾸 짜증을 일으켰다. 눈이 아리고 도무지 앞이 안 보여 한참 정신없이 눈을 비비고 섰다가 어떻게 다시 보면 거기 물벼락을 맞아 질펀하게 젖은 옷자락이 피투성이가 되어 나동그라져 있는게 헤트라이트의 사광 속에 드러났다. 그것은 처음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이었으나 얼마 못가서 그 공포는 악으로 변했다.(172)

①의 인용문이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는 시민들의 정치감각을 엿보게 하는 장면이라면, ②의 인용문은 데모 군중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총을 겨누는 정부-경찰을 리얼하게 보여준다. 데모대의 모습이 이처럼 세부까지 동원하여 리얼하게 묘사된 경우는 이전 소설에서는 보기 어려웠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M당도 J당도, 야당도 여당도, 현실정치 자체가 민중의 목표가 아님을 분명히 언표한다. 이 소설은 ‘알맹이 없는’ 현실정치 하의 민주주의의 구호가 아니라, ‘조국애가 실제로 만들어 놓은 온갖 현실적인 알맹이들’ 즉 새롭게 이 나라를 만들어줄 ‘제3방안’을 요구하는 것이다. 마산의거가 민족적 요청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리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청맥』의 민족적 리얼리즘론과 정합성을 보인다. 아시아 리저널리즘이 ‘민주와 괴리된 독재’로 흐른다는 비판과도 맞닿아 있다.

「반짝이는 것과 빛소리」(백인빈, 창간호)도 경찰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는 일상을 제시한다. 통행금지<sup>24</sup> 위반으로 파출소 보호실에 수감된 시민들의 일상이

24 통행금지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우리나라에서 통금은 45년 9월 7일 미군정에 의해 실시되었다가, 다시 전쟁 후 54년부터는 통금조항이 들어간 경범죄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군사적 조치’라는 의미에 ‘사법적 근거’가 부여되기까지 했다. 이어 이승만 정권은 ‘풍기문란 단속’이라는 근거를 추가하여 통금을 강화하더니, 5.16 이후 군사정권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4시까지로 연장했고, 이후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잠시 유화책을 쓰기도 했다. 72년 유신선포로 비상계엄령이 내려지면서 다시 등장했다가 88년 서울을

여러 가지로 제시되는데, 이들은 형사에게 폭행당하거나 즉결재판에 처해지게 된다. ‘반공규율 사회’의 폭압적인 이 제도로 억압당했던 것은 6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4시)만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 시민들의 ‘인권 및 자유’였고, ‘질서유지’란 미명 하에 시민들의 ‘인권 및 자유’가 강제된 일종의 폭력이었다.

이 소설에서 파출소에 수감된 채 듣게 된 ‘빗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 당대의 국가폭력의 현장을 의미하며, ‘반짝이는 것’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추구하는 희망을 의미한다. 이 희망은 ‘선옥’을 통해 상징되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소설은 전후문학의 추상적이고도 불특정한 우울에서 벗어나게 된다. 당대에 대한 비판적 현실인식이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화자인 ‘나’는 “아직 안 미쳤으면 대한민국 사람 아니지” “요새 제 정신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117)라고 외치면서, 국민을 광인으로 만드는 나라에 대한 비판적 현실인식을 드러낸다. 한편 선옥은 동네 언니 집에서 지내다가 형부에게 여러번 성폭행당할 뻔 하는데, “정치가만 죽일 놈이 아니라 남자는 다 죽일 놈”(119)이라 말하는 장면에서는 당대의 현실정치가 남성과 동일시된다. 여기서 여성은 정치=국가폭력=남성에 의한 ‘이중희생자’인 동시에 희망=여성=민중으로 호명되고 있다.

위 두 소설에서 특이한 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봄비와 더불어」에서는 선거 부정 및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즉 억울한 죽음을 고발하는 주체가 ‘어머니’로 설정되어 있다. 아들을 찾아 다니다가 시체들의 주머니에 모두 돌이 들어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한 어머니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첫 ‘보고자·고발자’가 된다.

이 장면은 어머니로 하여금 아들의 죽음을 ‘개인’의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인지하는, 즉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당대의 역사적 현장’으로 진입하게 만드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마산의거는 역사적 특수성을 담지한 시위로 발전한다. 3.15 부정선거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부정부패 또는 비리가 아니며, 시민들의 항거 역시 예전에 있었던 일반적인 시위와 다르다. 즉 구체적 현실이

---

림픽을 앞두고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82년 해제되기에 이른다. 조희연 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 책, 2003, 125쪽.

녹아 있다. 더 이상 즉자적인 사적 경험에 머물지 않고, 3.15 부정선거라는 역사적 현상을 매개로 역사적 특수성이라는 구체성을 담보하면서, 4.19로 이어지는 ‘혁명’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 소설의 시공간은 더 이상 ‘절대적 타자’가 아니며,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것이 아니다. 이 점이 50년대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50년대 소설에서는 전쟁이 ‘절대적 타자’로 ‘거역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으로 명명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 및 성찰이 가능했던 것은 근대 국가·사회에 대한 자각과 성찰, 그리고 대안적 모색의 필요성이 그 원동력이었다. 그 대안적 모색은 여성(성)을 ‘민중’의 상징으로 설정하고, 현실정치태의 강력한 고발자인 동시에 희망의 담지자로 배치하는 부분이다. 이는 ‘조국근대화’ 및 ‘근대’ ‘민중’의 젠더를 남성성으로 보았던 이전의 연구성과<sup>25</sup>와 다르다.

군대폭력은 「레바이아탄-나는 이미 내가 아니다」,<sup>26</sup> 「공황지대」에 잘 드러나 있다. 「레바이아탄」(송인향, 5호)은 대학졸업 후 군대에 가게 되나, 부관(육군 중위)의 폭력에 못이겨 발광하다가 ‘돌았다’는 판정을 받고 제14병원에 전속받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부관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나의 애인인 ‘아리’를 부관이 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sup>27</sup> 이 소설에서 ‘아리’는 아무 능동적인 행위 없이, 오직 두 남자의 ‘대상’으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타자화되어 있고, 병원 입원 후에도 계속되는 부관의 린치를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나는 계속 “부관이 온다” “그것은 부관이었다”를 반복하며 ‘바다에 투신하는 환각’에 시달리는 등 ‘광기’에 휩싸인다. 레바이아탄은 ‘인간의 힘을 넘는 매우 강한 동물’로서 흡스가 국가를 이에 비유했다고 거듭 강조함으로써, 군대폭력을 국가폭력의 한 형

25 배은경 외, 『조국 근대화의 젠더정치』, 아르케, 2015, 1-307쪽. 허윤도 민중이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보면서 이를 ‘남성성의 각본들’ 중 하나임을 지적한 바 있다. 허윤, 『남성성의 각본들』, 오월의봄, 2021, 325-362쪽, 참조. 이전 연구로는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옮김, 『근대성의 젠더』, 자음과모음, 2010, 1-439쪽.;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옮김,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1-279쪽, 참조.

26 이하 「레바이아탄」으로 약기한다.

27 앞의 「반짝이는 것과 빛소리」에서도 “시청 공무원들이 집을 뺏고 아내를 뺏는다”(117)는 언급이 나온다. 임권택의 영화 「죽보」 등에도, 남의 집 여성이 탐날 때, 그 부친이나 남편을 빨갱이로 몰아 감금하거나 죽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경우가 종종 등장한다.

태로 보는 이 소설의 관점이 확인된다. 군대 폭력이 경찰 폭력보다 더 억압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군대폭력에 의해 희생되는 ‘나’는 제목의 부제가 환기하는 바 ‘나는 이미 내가 아니다’. 부관과 나는 모두 군대 시스템 내의 존재이지만, 아감벤이 말한 바 부관은 주권자의 권력을 모방해 있으며, ‘나’는 ‘조에’(zoe)적 삶<sup>28</sup>에 머무는 차이를 보인다.

「공황지대」(박석준, 27호)에서의 군대폭력은 「레바이아탄」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전화를 잘못 받아도 구타당하고, 상사에게 불려 갈 때는 보호대를 차고 가야 할 정도로 구타가 일상화되어 있다. 공포, 현기증, 자기혐오 등이 ‘군대의 정동’이라 할 정도로 폭력이 일상화 되어 있으며, 자살자까지 속출할 정도이다. 군인은 사람이 아니라 ‘민첩한 기계’여야 하고, ‘처참한 노예’(84)에 불과할 뿐이어서, 군대는 제목이 말하는 바 그대로 ‘공황’ 상태 그 자체이다. 이들 소설에서 군대는 이미 ‘폭력장치’로 작동한지 오래이다.

동물왕국에 빗대 군사정권을 풍자하는 소설은 「울 안의 왕국」(백용운, 23호)이다. 새끼닭이 어미닭을 쪼아 반죽음(半死)상태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한다. 새놈들이 암놈들을 독차지하고 주도권을 장악하려 투쟁하면서 평화롭던 왕국에 변화가 생기지만, 인간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지닌 흰닭이 다시 ‘우리’의 왕이 됨으로써 평정된다는 결말이다. “이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오인하고 교만과 간악, 불법으로 군림할 때, 어느 땐가는 큰 코를 다치게 마련인가보다”라고 언급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은 인간다운 사랑의 방식, 세상은 주는데 이김이 있는 것, 법치여야 밝은 출구가 있다고 일갈한다. 힘의 논리로 작동하는 ‘울 안의 왕국’이란 독재정권을 풍자·비판하면서 법치를 강조한다. 즉 ‘힘의 논리’가 ‘무법지대’와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군대, 경찰 등의 예외상태로 인해 시민은 이미 ‘별거벗은 생명’ 그 자체였다. 50-60년대 아시아·아프리카 리저널리즘인 ‘민주와는 괴리된 독재’가 고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맥』의 제3방안의 지향점이 확인된다.

28 조르조 아감벤은 인간의 동물적인 삶, 노예적인 삶, 주체성이 결여된 채 그저 살기 위해 사는 삶은 조에(zoe)로, 폴리스에서 토론하며 자유롭게 영위하던 삶, 인간으로서 가치있게 사는 삶은 비오스(bios)로 구분한다.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1-353쪽, 참조.

여러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끼 수탉이 재차 어미를 반죽음 상태로 몰다가 주인에 의해 죽임 당하는 이 우화 소설에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답들은 수탉으로 설정되어 있다. 힘, 정복, 폭력, 혁명이 남성젠더화 되어 있는 것이다.

군대나 군사정권을 소재로 한 소설에서는 경찰 폭력을 다룬 소설보다 억압의 강도는 센 반면 ‘항의’ ‘고발’의 강도는 약화되어 있다. ‘광기’ ‘허수아비’ 등으로 마무리되어 저항적 실천으로 이동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공간’이 환기하는 바 여성성은 여기서도 극도로 제약되어 있어, 제3세계-한국-리저널리즘의 한 특징이 포착된다. 위의 세 소설에서 군대폭력 및 광기의 젠더는 남성성이며, 「레바이아탄」에서 언급되듯 여성은 광기유발의 원인이거나 삭제되어 있다. 광기의 주체도, 광기를 유발하는 원인도 남성성과 연결되어 있다.

## 2.2 ‘국가폭력으로서의 5.16’과 민중의 여성젠더화

5.16은 『청맥』에서 ‘혁명’으로 호명되지 않는다. 제목에서의 ‘혁명’은 ‘저들이 말하는 혁명’일 뿐이다. 남정현의 「혁명 후기」(4호)<sup>29</sup>는 5.16을 강력히 비판하는

29 이 소설은 이미 『한양』 63년 10월호(창간 20호 기념특집호)에 게재된 「혁명 이후」를 일부 수정하여 재수록한 것이다. 당시는 제3공화국의 탄생을 목전에 둔 시기여서, 「혁명 이후」에는 당시의 정치 상황에 대한 『한양』의 ‘착잡한 마음’(편집후기, 298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한양』은 군정의 민정이양을 강력히 요구했고, 63년 12월 군사정권이 선출되자 64년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연구 과제인 「『한양』에 나타난 ‘자이니치 디아스포라’의 리저널리즘 계보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2022S1A5A2A01038140)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1차년도 연차보고서는 23. 4에 제출).

위 두 소설에는 이러한 차이가 전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혁명 이후」에는 있으나 「혁명 후기」에서 삭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내 조국 코리아는 천하가 다 아는 자유의 소굴(…) 이웃집 옥분이라도 옆집 머슴 꺾다리도 소경도 귀머거리도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헌법을 장만하는 다정한 나라. 아름다운 풍경. 우선 여기에서는 누가 무슨 소리를 지껄여도 맞아 죽지를 않는 것이다.”라든가, “우리 집을 마땅히 국회로 인정하여야 한다” “내 동생 똥똥이는 자동적으로 국회의원이 되게 헌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만약에 이따위 빌어먹을 말을 저 미국이나 영국, 제 애비 앞에서 태연히 담배를 태우는 상놈의 나라에서 발설했다고 가정하여 보아라, 맞아 죽을 것이다. 국민을 모독하는 그따위 발언은(…)허지만 내 조국 코리아는 다행하게도 자유의 왕국. 성현 군사만 사는 나라(…)그렇다고 군인들의 말씀을 거

소설이다. 60년대 소설 중 5.16이 직간접적으로 비판의 초점이 된 바 없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단연 압권이다.

이 소설은 우선 근대화가 반드시 ‘혁명’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으로 가득차 있다. 특히 5.16과 같은 군사쿠데타의 방법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강력하게 제기한다. 이 소설에서 5.16은 ‘국가폭력’으로 의미화된다. 5.16은 ‘독재통치의 출발점이자 천민 자본주의와 결합된 폭력적 군사문화의 계기’<sup>30</sup>로 평가된다. 기본권을 탄압한 억압적 통치였으며, 이런 이유로 이 시기를 ‘감옥의 전성시대가 도래했다’고 비판한 논자도 있다.<sup>31</sup>

현대사에서 독재, 군인에 의한 정치변동 등은 ‘비정상적, 비이성적’ 정치체제라는 측면에서 흔히 ‘광기’로 의미화 된다. 「혁명 후기」에서 5.16은 ‘사람’을 ‘짐승’으로, 이 땅을 ‘전쟁터’로, ‘사람 살 곳이 아닌’ 곳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이 소설보다 3년 후에 발표된 「분지」가 민족주의와 신식민주의 대립이라는 입장에서 불평등한 외세(한미관계)에 대해 천착한 문학적 패러디라면, 「혁명 후기」는 외세보다 제3방안을 실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진정한 혁명’의 배반적 요소들을 직접 다룬다. 「분지」가 우화적 방식으로 미군 부인을 겁탈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리얼리티의 훼손을 초래한 반면, 「혁명 후기」에서는 5.16이란 국가폭력으로 인해 질식당한 채 광기로 얼룩진 남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리얼리티를 확보한다.

5.16을 계기로 성격과 인물 자체가 돌변하여 ‘거의 짐승이 되어 버린’ 난폭한 ‘나’와, ‘나’의 폭력으로 인해 ‘전쟁이 판을 치고 간 폐허와 같’은 아내 지아가 주인공이다. 남편은 난폭해진 이유를 단지 ‘시기’, 즉 5.16에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5.16과 폭력을 등치시킨다. 5.16 후 ‘나’는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한다. 남편의 폭력에 견디다 못해 지아는 대항하기 위해 칼을 품고 다니지만, 힘이 없어 ‘나’에게 곧 칼을 빼앗기고 만다. 남편은 칼을 빼앗아 지아를 찌르는 과

---

역할 자유까지가 다 허용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군인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추종하여라. 그러나 나는 불행하게도 신자가 아닌 것이다.”(247-248). 위에서 보듯 「혁명 이후」가 5.16 및 그 주체에 대해 훨씬 더 풍자적이고 비판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30 조현연, 『한국 현대정치학의 악몽—국가폭력』, 책세상, 2000, 21쪽.

31 박태순·김동춘, 『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7, 142쪽.

정을 ‘조국이 허락해 준 단 하나의 자유라도 행사하러 가는 기분’(220)이라 언급한다. 5.16도, 나의 폭력도 ‘자유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의미화된다. 5.16은 강자의 힘의 논리에 의해 언급되는 ‘자유’<sup>32</sup>로서, 이들은 모두 ‘짐승같은 행위’로 명명된다. 이 곳의 헌법은 ‘생각날 때마다 지우고 또 쓰면 되는 것’(225)이라 일갈할 정도로 이 곳은 이미 ‘예외상태’이다. 즉 5.16이 무법지대 속에서 일어났고, 그 결과 또한 무법지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계열의 소설에서 이승만 정권, 5.16을 통한 극우반공체제의 확립과정과 국가폭력의 형성과정은 호몰로지를 보여준다. 국가폭력은 극우반공체제 확립의 동력이었고, 남편과 아내는 예외상태의 상례 속에서 ‘벌거벗은 생명’으로 전락해 있다. 제3세계-리저널리즘의 특징으로 언급된 바, ‘짐승같은’ ‘자유’ ‘무법지대인 한국’은 아시아·아프리카의 각국에 맞는 ‘새로운 민족주의를 가장’한 ‘민주와 괴리된’ 독재에 해당한다. 『청맥』은 이러한 독재를 비판하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휘두르는 폭력을 ‘단 하나의 자유’로 언급할 정도로 무기력하다. 그의 무기력은 5.16을 막지 못했다는 데 기인한다. ‘나’의 광기는 예외상태를 만든 국가폭력을 저지하지 못한 절망의 표현인 것이다. 남편의 죽음은 스스로 죄의식을 만들어 스스로를 처벌하는 형태의 것으로서, 광기에 대한 ‘감시와 처벌’ 기제와 맞닿아 있다.

5.16을 ‘시기’와 관련해 사유한다는 것은 5.16이 ‘진정한’ 민족주의적 방법

---

32 이승만 정권에서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란 ‘우리를 결박하고 억울한 죽음만을 강요한 사자의 기념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청맥』에서 제기된 바 있다(김질락, 「조국은 금치산자」, 『청맥』 제4호, 청맥사, 1964.12, 33쪽). 이 때의 자유란 더 큰 민족적 자유를 위해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자유’ 개념에서 강등되고 제한된 의미의 자유를 의미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에는 언론과 사상의 자유 및 다양성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장준하의 ‘자유’ 개념 및 이승만 정부의 ‘자유’ 개념도 이와 동궤라 할 수 있다. 즉 자유를 위해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를 체제정쟁을 위해 희생시키는 것이다. 이는 ‘보편으로서의 자유’라기보다 ‘냉전자유주의’에 해당된다. 이런 이유로 ‘사이비 자유(ur-freedom)’, ‘자유주의에 대한 배신’ ‘서구 자유주의의 최종적 쇠퇴지점’으로 언명되기도 했다. 김복순, 「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로컬-냉전지(知)의 젠더-1950년대 『사상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9호, 2013, 73-125쪽. ; 김복순, 「국가비상사태선언 이후 ‘불평등 정당화/해소’의 방법적 전환」, 앞의 글, 참조.

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와 연결된다. 반공체제의 통치기술로 인해 폭력의 내면화가 조장된 결과<sup>33</sup> 온 국민이 ‘광기’에 사로잡힐 만큼 왜곡된 현실을 만들어냈다. 그렇기에 5.16은 정당한 자유의 방식도, 정당한 평등의 방식도 아니었으며, 바람직한 민족주의의 길인 제3방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작가는 ‘광기’와 ‘죽음’으로 형상화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나’의 ‘비정상’과 ‘정신이상’이라는 ‘이성의 결여’ 상태<sup>34</sup>는 5.16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즉 5.16과 ‘나’가 폭력의 측면에서 등치되고 있다. 5.16을 하나의 ‘대 공포(le grand peur)’<sup>35</sup>로 보면서 5.16 후의 사회를 ‘새로운 수용소’로 간주하는 유비가 형성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 광기는 아직 5.16이 ‘주인공의 능력 바깥’에 있음을 알려 준다. ‘거의 짐승처럼’ 괴물로 만든 5.16을 극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내더러 떠나라고만 말할 뿐 사회에 대한 전망 및 실천을 직접 보여주지는 못한다. 5.16의 폭력에 압도되어 아직 합리적 전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 소설이 5.16으로부터 막 2년이 지난 시점, 즉 진정한 민정이양이 불투명해져 가는 시점에 씌여 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약점이라 보기 어렵다. 4.19의 문학적 결실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도 70년대에 들어서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혁명 후기」의 지아는 좀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몸이 상하도록 견디는’ 지아의 강인한 인내력은 민중정신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아로 상징되는 민중의 강인한 인내력에 감탄(222)하며 ‘공포증’을 느낀다. 지아는 이미 조에(zoe)에서 비오스(bios)로 이동한 것이다. 민중의 강인한 인내력에 대한 이 공포는 ‘오줌이 마려운 병’, ‘땀이 빠지고 숨이 가빠지는 병증’으로 나타난다. 그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오줌이 전혀 나오지 않는 날’로 이어지면서 나는 결국 지아에게 ‘원수를 빨리 갚으라고 외치다가 넘어져 피를 흘리고 죽는다. 이는 민중에 의한 패배를 의미한다.

이 계열의 소설들은 4.19 및 5.16, 국가, 전쟁, 폭력 등은 남성성으로, 민중

33 변광배, 『폭력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세창출판사, 2023, 383쪽.

34 제이슨 스탠리는 파시스트 정치의 특징으로 반지성, 비현실, 위계, 피해자 의식 등을 들고 있다. 제이슨 스탠리, 김정훈 옮김, 『우리와 그들의 정치—파시즘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숲, 2022, 1-305쪽, 참조.

35 미셸 푸코, 이규현 역, 『광기의 역사』, 나남, 2003, 2020, 575-616쪽.



과 저항정신은 여성성으로 배치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카테고리에서 여성은 시선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설정되어 있다. 여성성은 「반짝이는 것과 빛소리」 「영점 영시」에서처럼 ‘희망’과 행복의 대명사로, 「혁명 후기」에서처럼 국가폭력·남편의 이중피해자이지만 강인한 인내력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민중, 저항정신과 연결된다. 이전 서사에서의 불행, 수난, 폭력의 대상으로서의 여성과 결별하고 있다.

한편 「혁명 후기」에서는 ‘수난’이 오히려 남성(성)과 더 밀착되어 있다. 60년대 국가폭력이라는 역사적 사실 또는 진실 앞에서, 『청맥』은 기존의 문학적 방법을 재조정해 가해자=남성, 피해자=여성의 등식을 ‘변환’하고 있다. 여성을 수난의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배치하지만, 여성의 강인성을 민중의 속성으로 개념화하면서 그 극복을 제시하는 반면, 국가폭력에 의해 광기에 일방적으로 노출되면서 트라우마에 사로잡히는 인물들은 모두 남성으로 처리한다. 이는 통상적인 남성 주체 호명 방식<sup>36</sup>과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남성 주체는 여성을 타자화 대상화 하는 방식으로 설정되나, 여기서는 ‘역전’되어 있는 것이다.

### 2.3 국가보안법과 ‘보복하는 여(남)성’의 호몰로지

「맹꽁이 의원」(오유권, 2호)에서는 간첩방조죄를 다룬다. 전쟁-분단의 결과, 특히 극우반공정권에게 간첩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이다. 더구나 한국전쟁은 내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간첩은 더욱 위험한 존재이다. 남한에서 간첩방조죄는 반공법, 국가보안법과 연결된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 ‘악법 중의 악법’이라 평가되어 왔다. 개인의 사상 및 신체의 통제를 일상화 한다는 점에서 ‘법’이라기보다 ‘폭력 그 자체’ ‘총, 칼 그 자체’여서, 국가보안법으로 연행, 기소되는 경우 헌법과 법률 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 사상의 자유, 그간 축적해온 온갖 재산과 명예 등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sup>37</sup>할

36 김은하, 『개발의 문화사와 남성 주체의 행로』, 국학자료원, 2017, 1-384쪽.

37 국가보안법은 48년 여순 사건 후에 반국가단체의 조직 가입, 이적 행위를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졌고, 60년대 군사정권 수립 직후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국회 외의 조직에서 통과되었으며, 70년대 유신 이후 초헌법적으로 작동한 바 있다. 조현연, 앞의 책, 25-30쪽

정도였다.

이 소설은 극우반공정권 및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악랄해진 50-60년대의 상황을 날카롭게 보여준다. 「맹꽁이 의원」은 돈많은 과부와 결혼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는 주인공 박홍모(지계꾼)가, 월북한 남편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인공에게 접근한 김씨네의 속임수에 걸려 간첩방조죄로 잡혀가게 된다는 줄거리이다. ‘자유당 할라면 머슴살이가 더 낫다’ ‘자유당은 도둑놈 소굴’(189)이라 함으로써 백과 돈이 판치는 당대의 세태를 비판적으로 고발한다. 김씨네는 돈과 백으로 남편의 빨갱이 활동을 무마하려고 했던 것이다. 김승옥 「무진기행」에서 보듯, ‘돈 많은 과부’는 ‘노동 소득’에 비해 훨씬 고효율의 ‘자본 소득’을 가진 자이다. 간첩은 언제든지 이 자본 소득을 날릴 수 있는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김씨네는 이 국가보안법을 피하고자 하부 주권권력인 국회의원을 활용하기로 한다. 김승옥의 「무진기행」에서처럼 과부의 자본소득은 통상 ‘출세의 엘리베이터’로 작동하는데, 여기서는 ‘신분세탁’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즉 예외상태의 특징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봄비와 더불어」(강용준, 9호)에서 잡혀간 데모자의 어머니가 ‘매를 맞아 병신이 된 것은 하나도 안 슬프다. 빨갱이로 취급하는 것은 억울하다’(175)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빨갱이 조작’으로 명명하는 국가폭력에 항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빨갱이 낙인’은 ‘살아있는 죽음(living dead)’보다 더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다. ‘빨갱이 낙인’은 대표적인 국가폭력에 해당한다. 해방 후 냉전은 ‘빨갱이의 탄생’으로 지탱되었으며, 그만큼 감시와 검열을 비롯한 전방위적 억압과 차별, 사회로부터의 추방이 뒤따랐다.<sup>38</sup>

경쟁자를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도 상대를 ‘빨갱이’로 언급하기만 하면 되

---

**38** 빨갱이란 단지 공산주의 이념의 소지자를 지칭하는 낱말이 아니었다. 빨갱이란 용어는 도덕적으로 파탄난 비인간적 존재, 짐승만도 못한 존재, 국민과 민족을 배신한 존재를 천하게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공산주의자라는 낱말이 정치적 지향을 일컫는 것에 반하여, 빨갱이는 공산주의자를 비인간적 존재로 멸시하는 용어였다. 여순사건을 거치면서 빨갱이는 인간의 기본적 위엄과 권리를 박탈당한 ‘죽여도 되는 존재’, ‘죽여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후에는 빨갱이를 죽이는 것 자체가 애국하는 일이고 민족을 위하는 일이며,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일로 생각되었다.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선인문화사, 2009, 46-47쪽.

는 한국판 매카시즘이 횡행하고 있었다. 그런 탓에 어머니는 아들이 ‘병신’이 되는 것보다 ‘빨갱이 취급’을 받는 것이 더 무섭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국가폭력이 일상화 되면서, ‘데모대=빨갱이의 등식 속에서 ‘민주주의는 이미 요절나 버렸’ 으며(160), ‘이 세상에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평등도 마찬가지다(174).’

「해(亥)」(백인빈, 15호)에서도 상사(강상권 중위)의 괴롭힘으로 고생하다 제대한 ‘나’가 친구의 휴가가 무산되자 전방 부대에 위문간 것이 ‘월북’으로 오인 되어 잡혀간다. 여기서도 군대폭력으로 점철된 주인공의 군대 경험은 연애와 사랑 등 일상적 삶의 구석구석까지 연관되어 그를 지배하고 있으며, 뚜렷한 근거도 없이 필요에 따라 월북으로 몰아 징치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테러조작설」(오영석, 21호)도 대학 때 S대 교지 필화사건으로 전과자가 되었던 주인공이 불온사상을 지녔다는 이유로, 용공 프레임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비판한다. 주인공 김성도의 이런 과거를 고발한 사람은 S대 동창 인걸이었다. 인걸에게 성도는 연적이었고, 복수심으로 가득찬 인걸은 연적을 용공 프레임으로 씌워 제거하고자 한다. 당대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필화사건, 노동파업, 데모 등을 ‘불온’으로 다루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불온’ 프레임 또한 일종의 폭력임을 역설하면서, ‘제3방안과 연결지어 논의하려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현실’(157)이기에 새롭게 조직화해야 하지만, 성도는 이력서에서 전과자라는 글자를 굳이 삭제하려 하지 않는다. 다시 붙잡혀 투옥될 것을 예감하면서도 성도는 사회에 대한 고발을 가차없이 해보겠다고 다짐한다. 예외상태의 법질서에서 ‘스스로 추방’되고자 한다. 자신의 이력이 더 이상 단점이 아닌 세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도, 인걸과 더불어 이 소설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미스 최(지연)라는 인물이다. 미스 최는 성도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 주지 않자 보복하기로 작정한다. 미스 최는 적극적인 인물이어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지 않는다. 거절당한 후 지연은 그를 ‘가짜 테러리스트’로 조작해 당국에 신고한다. 복수가 상대방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되갚는 행위라면, 보복은 상대방의 행위가 정당함에도 자신이 받은 불이익에 대한 대응행위를 가리킨다. 사랑은 ‘정당/부당’의 틀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연의 행위는 복수라기보다 보복에 해당한다. 우르술라 리히터는 복수를 ‘여성들의 자기주장의 형태’라

고 언급한 바, 여성의 복수는 기본적으로 끈질긴 지배구조에 기인하며, 권력의 문제라고 본다.<sup>39</sup> 보복·복수 등의 행위에는 분노·원한·울분 등의 여러 감정이 섞여 있으며 물리적, 정신적 손실·손상 등을 등가로 교환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이 소설은 여성의 욕망에 대한 긍/부정을 통해 선악의 경계를 허물면서 정치체제를 환기한다. 지연의 보복이 문제적인 것은 권위주의 정권이 부당하게 행사해 왔던 ‘빨갱이 낙인’이라는 ‘용공 프레임’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가장 악랄한 방식인 ‘빨갱이 낙인’이란 방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보복하는 지연은 ‘악’으로 위치되는데, 이는 성도의 ‘빨갱이 성’이라는 ‘더 큰 악’을 지적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이 언급된다. 이 지점에서 기존의 선악의 경계가 무너진다. 처음에는 지연의 보복이 욕망에 치우친, 병적인 선택으로 비춰졌지만, 반공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이 설파되면서 악의 위치가 뒤바뀌는 것이다. 그간 복수·보복을 독점해온 권위주의 정권의 형벌체계를 모방함으로써, 지연은 일약 당대 사회체제를 ‘보호’(방어)하려는 인물로 부상한다. 여성이 이러한 모방의 주체가 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매우 독특하다.

연적 또는 사랑고백에 대한 보복은 일종의 ‘미끼’로서, 지책이 말한 ‘이데올로기적 전치’<sup>40</sup>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진짜 적개심’의 ‘가짜 갈등’으로서 ‘권위주의적/민주주의적 갈등’이 ‘개인적인 애정 갈등’으로 전치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이 소설은 지연과 성도의 보복(가짜 갈등)을 통해, 당대에 만연된 ‘빨갱이’에 대한 진짜 적개심을 확인시키면서, 보복·복수의 주체인 권력관계를 확인시킨다. 복수·보복은 힘의 불균형에 의해 형성되는데, 바로 그 힘은 권위주의 정권에

---

39 우르술라 리히터는 여성의 복수를 단지 ‘관심의 또 다른 형태’라거나, 공적 복수와 사적 복수가 분리되어 있다거나, 개인에 국한된 비정상적이고 범죄적인 돌발행위이며 병적인 것으로 설명하려는 기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르술라 리히터, 손영미 옮김, 『여자의 복수』, 다른우리, 2002, 20-24쪽, 121쪽.

40 지책에 의하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적대’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전치된 가짜 갈등이며 미끼라고 말하면서, 유사 자연화된 민족-종교적 갈등들이 전지구적 자본주의체제에 잘 부합하는 투쟁의 형식이라 지적하고 있다. 슬라보예 지책, 이현우·김희진 옮김, 『실재의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음과모음, 2018, 157-186쪽 참조.

부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복수·보복이라는 정동을 통해, 인걸과 지연은 권위주의 정권의 ‘폭력을 전유’하면서 다시 이를 고발하는 이중적 의미를 띤다.

‘보복성’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보안법과 인걸, 지연의 행위는 호몰로지라 할 수 있다. 국가(정부)는 자신의 체제를 위협하는 국민에게 ‘용공 프레임’으로 ‘빨갱이 낙인’을 찍는 등의 폭력적 방법으로 보복하고, 여성은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남성에게 국가보안법이라는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보복하는 것이다.

‘보복하는 여성’, 즉 ‘저항할 권리’를 행사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여성을 제시했지만, 남성(인걸)과 여성(지연) 둘 다 사적 욕망의 차원에서 용공 프레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젠더 기획은 이 소설에서 국가폭력을 비판하는 도구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 ‘보복하는 여성’의 적극성이 반공 냉전을 육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청맥』이 지향하는 바 탈냉전과 ‘배리’된다. 이 점에서 젠더 기획의 한계와 문제점이 확인된다.

#### 2.4 민족주의의 폭력성과 ‘새 사회 원리’의 남성성

「별장이 있는 풍경」(한남철, 10호)과 「영점 영시」(현재훈, 11호)는 친일청산의 문제를 다룬다. 일본의 식민 통치는 일본=문명, 조선=야만의 등식으로 인간의 이성 및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 도태시키려 한 극단적 파시즘 체제였다. 그것은 곧 천황제라는 독특한 국가체제의 산물이었고 총독의 명령이 곧 법이 되는 노골적인 공적 폭력체제였다.<sup>41</sup>

「별장이 있는 풍경」에서 주인공이 동경하는 멋 있는 별장 주인은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인 친일 고관대작이었다. 「영점 영시」에서는 항일투사였던 아버지를 밀고한 사람이 현 국회의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별장이 있는 풍경」의 ‘나’의 할아버지는 지조를 굽히지 않아 칭송받는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가난에 찌들어 있다. 반면 친일파였던 별장 할아버지는 민족을 팔아넘긴 대가로 부의 재생산을 이루며, 지금도 별장 같은 멋진 집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자의 시선을 내면화 하여 살아가던 ‘나’는 한때 별장을 동경하지만 형으

41 조현연, 앞의 책, 19쪽

로부터 자중지중을 듣고 난 후 그 집에 방화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끝난다. 「별장이 있는 풍경」에서 형은 투철한 신념의 소유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순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게 만드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영점 영시」는 이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간다. 아버지는 한때 항일투사로서 민족의 소명을 받아 명망을 떨쳤으나 지금은 줌도독이 되어 유치장을 들락거리는 신세에 불과하다. ‘나’는 아버지뿐 아니라 나라를 멸망시킨 최효섭 국회의원을 죽이는데서 그치지 않고, 아버지 또한 죽어 마땅하다는 일종의 신의 계시에 접한다. 최효섭 국회의원은 부도덕한 친일파로서 죽어 마땅하지만, 애국주의를 유지하지 못한 채 추악한 줌도독으로 전락한 아버지 또한 죽어 마땅하다. 나는 한때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키릴로푸를 모방한 자살예찬론자(216)였으나, 이제 ‘신세계의 원칙을 수립’하여, 악을 제거하고 새로운 도덕을 창시하려(217) 한다. 살인도 이러한 신도덕 하에서는, 즉 인류애에 근거를 둔 조국애라는 의식 하에서는 정당화 된다(220)는 것이 ‘나’의 ‘신도덕 원리’이다.

이 소설은 세대론적 입장에서 ‘아비 살해’에 접목한다. ‘아비 살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상징되는 모든 억압으로터의 ‘해방’을 의미하듯, 아들 세대는 새 사회의 주체로서 ‘아버지’로 상징되는 ‘구’사회를 거부하고자 한다. ‘아비 살해’를 통해 강조되는 것은 제국주의의 폭력적 성격 및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정치세력이다.<sup>42</sup> 이는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주체설정과 연관되어 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나를 따르라’면서 자신을 선지자라 판단하는 소영웅주의를 드러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별장이 있는 풍경」이 친일을 응징하는 데서 마무리된다면, 「영점 영시」는 친일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보다, 새사회 건설에 주안점이 있다.

위 두 소설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폭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만드는 매개체이다. 제국주의의 폭력에 또 다른 폭력으로 맞서려 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의 폭력성이 읽힌다. 아시아 리저널리즘 제5계보의 약점이 도출되는 지점이다. 그런데 「별장이 있는 풍경」의 민족주의의 문법이 제국주의의 문법과 동궤의 것이라면, 「영점 영시」의 문법은 이와 좀 다른 양상을 띤다.

---

42 김복순,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특집 및 권두언을 중심으로」, 앞의 글, 247쪽.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식민주의 및 그에 부수적인 부를 청산하고자 할 때, 그때의 폭력은 우리 민족의 공공성으로 인해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법적 절차를 통한 것이어야 정당한 것이지, 사적 복수의 차원이어서는 곤란하다. 안중근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듯,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것으로서의 폭력은 테러가 아니다. 하지만 식민지 상태가 종결된 50-60년대에 물리적 폭력으로 친일파를 징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따라서 신도덕, 신사회의 도래를 의미하는 「영점 영시」에서의 살인은 용인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친일파 청산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혐오와 차별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되려면, 우리 쪽의 혐오와 차별 또한 정당성을 지녀야 한다. ‘빨갱이 낙인’이 폭력이라면 ‘친일파 청산’ ‘토착왜구 척결’ 또한 폭력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성은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친일청산마저 폭력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 물론 「영점 영시」의 주인공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국회의원을 징치할 것이라는 예측이 아직 배제된 것은 아니다. 또 ‘아비 살해’도 물리적인 것이라기보다 상징가치라 볼 수 있다. 최효섭 국회의원의 친일이 제국주의의 폭력성으로 의미화 된다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줌도둑으로 전락한 아버지 또한 이에 순응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국애와 부성애에 대한 ‘황홀한 추억이면서 비참한 밀천’이란 모순적 감정은 ‘살해의 정당성’에 대한 고민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음을 일러준다.

이 소설은 친일파 국회의원과 아버지 둘 다 거부한다. 양비론을 취하는 이유는 신도덕에 기반한 신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나’의 비판은 친일파 청산이라는 과제가 혐오와 차별로 얼룩진 것이 아니어야 함을 역설한다. ‘나’는 제국주의의 폭력성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새국가건설이라는 대전제 앞에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하여 죽어 마땅하다고 보는 것 또한 폭력성을 담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의 폭력성에 대한 성찰이 개입되어 있다.

이 소설은 신도덕에 기반한 신사회의 원리가 ‘인류애로서의 조국애’라고 함으로써 ‘양심에 매개된’ ‘자율적 개인’의 성찰을 보여준다. 이 부분은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제5계보의 특징과 맞닿는다.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제5계보에서는

다원화 및 ‘국가 내의 개인적 자유’가 강조되어 있다.<sup>43</sup> ‘인류에로서의 조국애’에는 자율적 개인의 성찰, 즉 새 사회의 도덕적 원리를 구상할 수 있는 ‘국가 내의 개인적 자유’가 요구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점 영시」는 아시아 리저널리즘 제 5계보의 소설적 형상화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민족주의의 폭력성<sup>44</sup>을 확인시킨다는 점에서 신도덕 원리의 한계, 민족주의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것이 이 계열의 취약점이자 『청맥』의 제3방안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아직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라는 이분법 아래, 제국주의를 ‘타도의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민족주의의 폭력성을 허용하고 있어, ‘민족주의의 너머’를 상상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개인’의 성찰을 보여주고, ‘인류에로서의 조국애’라는 비폭력적 ‘방법’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그 방법은 민족주의의 폭력성에 기반한 것이기에 진정한 탈식민적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계열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국가, 사회, 시민, 자율적 개인 모두 남성(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나 도래해야 한다는 신사회에도 여성(성)은 언급되지 않는다. 아버지를 부정함으로써 ‘남성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성을 주체로 설정하는 것도 아니었다. 아들 세대가 근대화의 주체로 설정되어 있으며, 사회, 국가는 남성(성)으로만 구성되거나 대표되어 있다. 여성(성)은 국민도, 시민도, 사회인으로도 인식되어 있지 않다.

이는 『청맥』의 경제기획 관련 논문들에서 확인된 바, 역사, 학문, 사회, 시민의 개념 속에 ‘여성(성)’이 아예 소거된 것과 확연히 일치<sup>45</sup>한다. 이는 군대 폭력, 경찰 폭력, 5.16 비판 소설에서 ‘여성’이 ‘희망’의 상징으로, ‘민중성의 담지자’로 형상화되었던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이다. 고래로 사회문화적 표준은 근본적으로

---

43 김복순,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문학 비평을 중심으로」, 앞의 글, 1장, 296-303쪽 참조.

44 허선주·송은경, 「민족주의에 의한 국가폭력의 정당화」, 『남아시아연구』, 제26권3호, 2020, 63-84쪽.

45 김복순,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특집 및 권두언을 중심으로」, 앞의 글, 253-254쪽 참조.



남성이었으며, 역사, 진리, 시민, 학자, 정치인, 보편성, 객관성 등의 개념 역시 남성으로 표준화된 남성중심적 인식론(male-centered epistemology)<sup>46</sup>임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는 남성젠더화이지, 젠더중립적이거나 비젠더화로 보기 어렵다.

## 2.5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폭력 문제와 가해/피해의 역전된 성적 은유

「칠면조」(김용운, 22호)에서는 이 사회가 ‘개/개장수’의 관계임을 언표했다면, 「야만인」(오영수, 20호)에서는 애지중지 기르던 개가 다른 개를 물어 치명상을 입히자 그 사랑하던 개를 보신탕으로 끓여 먹는다. 자본주의적 근대 사회의 소외와 물화를 드러내면서, ‘야차의 얼굴로’ 서로 물고 물어뜯기는, 팔고 팔리는 포악한 세상을 비취 준다. 사랑받던 개도 주인에 의해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토사구팽은 물론 죽음까지 각오해야 할 정도로 이 사회는 속화, 물화되어 있었다.

「밤사람들」과 「사기사」, 「바람 속에서」 「이족(異族)」은 국가폭력과는 다른 차원에서 자본주의적 근대 사회의 소외와 물화, 궁핍상을 날카롭게 보여 준다. 사기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이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문화적 폭력 및 가치관의 폭력 문제를 다룬다.

「밤 사람들」(신덕재, 17호)에서 이 세상은 식민성의 내면화, 민족성의 타자화 속에서, 온통 ‘허위를 증명해서 사는’ 곳이다. 정치가, 일반 시민 할 것 없이 모두 거짓생활을 하고 있다. 주체성을 상실한 채, 미국의 구호 원조품 사업도 사기로 운영되며, 자본주의적 근대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사기당해 나라락으로 떨어진다. 이처럼 사기로 운영되는 나라에서 안여사네 가족도 사기당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 주변에 ‘권력자’로서의 정치가, 행정가들이 먹이를 탐하는 속물적 인간군으로 포진해 있다. 대학졸업증도 위조되고, 긴급구호신청도 사기로 이뤄지며, 남편 친구도, 민사처 직원도, 친구 아버지도, 수재민 지구 총대표이자 통장도, 정치인도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며 사기치기에 바쁘다. 이러한 사

---

46 김복순, 「만들어진 보편과 젠더화된 근대미학」,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15-25쪽.

기공화국에서 빈곤은 곧 무능, 무사유가 된다. 이 자본주의적 근대 사회에 ‘인간의 얼굴’은 존재하지 않는다. “돈이 없으면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는 줄 알아?”라고 울분을 토하는 주인공에게 권력자들의 사기는 폭력과 다름이 없다.

「사기사」(김용운, 19호)에는 아예 사기술을 배워 흑세무민하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최형사를 만나 직업을 바꾸고 정착하려 하지만, 사회는 자본이 없는 그로 하여금 다시 사기 업종을 선택하게 만든다. 아내 또한 젊은 장사꾼의 꼬임에 빠져 가출한 탓에, 몸도 망치고 버림받은 후 덕배와 만나게 되었다. 덕배의 사기술이 정점을 향하던 차, 그가 사기친 대상은 장인이었음이 드러난다. 밑천이 없는 세상에서 덕배로 하여금 사기꾼이 되도록 한 것은 모두 사기로 얼룩진 이 세상이었다. 덕배는 하느님에게 묻는다. ‘당신과 나 어느 쪽이 진짜 시기꾼이냐’고. 자본주의적 근대에 적응하지 못한 빈민이 도달하는 길은 이같이 물화에 점령당한 사회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잘 묘사해 주고 있다.

「바람 속에서」(하근찬, 16호)도 주인공인 양원구 교사는 기자의 폭력, 즉 언론 폭력으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된다. 너무 빈한해 끼니조차 거르는 양원구 교사를 보고 소사인 박서방이 호의로 몰래 옥수수가루를 가져다 준 것이 탄로난다. 결국 횡령한 것이 되어 양교사는 산골학교로 좌천발령된다는 이야기이다. 딱한 사정을 듣고 교장도 교감도 덮어주려 하나, 언론 권력을 가진 기자들이 계속 기사를 폭로하는 바람에 좌천된다. 한편으로 보면 언론은 ‘사실을 보도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지만, 전후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무조건 터뜨리고 보는 기자의 권력은 일반 시민에게 폭력일 수 있다는 점을 일갈하고 있다.

「이족」(김성필, 26호)에서는 고아원출신인 탓에 취업에서 번번이 탈락하는 주인공을 통해 ‘다름’을 차별하는 사회의 폭력을 고발한다. 성구는 성실하고 유능한 청년이지만 단지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직이 되지 않자, 시골출신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취업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에 휘말려 다시 쫓겨난다. 이 소설은 고아원 및 고아원 출신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시선을 문제삼는다. ‘에비 에미 있는 놈’들과 ‘고아원 출신’이 대비되면서, 고아원에서만 볼 수 있는 안타까우면서도 훈훈한 풍경들이 제시되는 이유이다.

「이족」에서 고아원에 대한 사회의 폭력은 여자애에 대한 남자애들의 폭력과 유비된다. 오로지 언론 권력 탓에 휘둘러 성구를 좌천되게 만드는 「바람 속에서」

의 기자는 여기자이다. 남자 기자는 사정을 알고 침묵하려 하지만 다음날 찾아온 여기자는 성구를 고발한다. 「바람 속에서」의 안여사와 「사기사」의 아내는 순응적인 여성으로 나오지만, 「이족」에서는 사회물정을 감안하지 않고 난폭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여성으로 제시되어 있다.

아시아 리저널리즘 제5계보는 발전론을 채택하는 바, 2.5의 소설들은 ‘발전’의 결과로서의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각종 부패, 비리 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식민성의 내면화, 민족성의 타자화, 사기공화국 속에서 탈식민 및 발전론의 한계를 섬세하게 비판하면서, 빈곤이 무사유로, 비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체제의 폭력성을 비판한다. 이는 제5계보가 주창하는 ‘자유로서의 발전’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 계열에서는 유능/무능=남성/여성=포용/폭력의 성적 은유가 작동하고 있으며, 가해/피해의 측면에서는 여성/남성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통상적인 젠더 호명 방식과 다르게 역전되어 있다.

## 2.6 탈식민 노동자 연대와 노동의 남성젠더화

2.4에서 검토한 친일청산의 문제와 다른 입장에서 ‘일본’ 문제를 짚고자 하는 소설이 「시효」(심재언, 25호)이다. 이 소설에서 일본은 제국주의자, 식민주의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그려진다. 이 소설에서 ‘일본’은 선/악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주인공에게 삶의 거처로, ‘대안적 삶’의 ‘기회’의 장소로 그려져 있다. 조선에서 더 이상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나’는 행복자가 된 박창식 형이 오사카에 거주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 형이 일본으로 밀항한 것은 아버지가 산에 아편을 심어 키운 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10년 시효가 지나면 된다고 알아 일본으로 밀항했던 터이다. 창식은 일본에 있는 것이 성공하기 빠르다고 강조하고, ‘세상은 돈’(119)이라면서 자본주의적, 배금주의적 사고를 드러낸다. 일본에서의 교포생활이 “찬물 속에라도 있는 듯”(115)하고 ‘조선놈은 무국적 잡초’(120)라면서도 창식은 일본을 떠날 생각이 없다. 창식은 차별 속에서도 거의 일본에 동화된 상태였다.

그런 창식에 대해 동식은 지배자와 일반 국민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한다. 제국주의자, 식민 지배자와 달리, 일본의 일반 국민, 피지배층에 해당하는 일본 노동자들을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역설한다. 일본의 노동자는 피지배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앞의 「별장이 있는 풍경」의 ‘나’처럼 우리 속에 내면화된 은밀한 욕망구조가 친일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자본주의체제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 노동자들과 탈식민 체제를 재구성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기존의 절대선/절대악이라는 이분법적인 반일/친일 구도에 결속되기보다, 반일을 초극하는 ‘또 다른 보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반일 초극의 또 다른 보편성 추구는 아시아 리저널리즘 제5계보의 주창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일본인과 조선인을 비교하면서도 창식은 조선인의 장점을 잊지 않는다. 또 일본 피지배층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도 잊지 않는다. 일본인은 군대에 가야 하지만, 일본에 온 조선인은 군대를 안 가도 된다는 등. 생활전통에 충실한 조선사회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빼앗으려 해도 빼앗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제사를 지내려고 지방을 쓰면서도 동식은 민족생명을 느낀다.

이는 『청맥』의 담론에서 강조해 하지 않았던 ‘주체성’과 맞닿아 있다. 『청맥』은 ‘식민성의 내면화’를 가장 경계하면서, ‘전통의 현재적 생명’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외래문화의 유행 속에서도 면역성이 생겨 ‘전통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극복방법이 제시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sup>47</sup> 일종의 ‘자기 긍정의 선언’이다. 비록 식민지 상태여도 일본사람이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미쓰이탄광 동맹 파업 시 영국노동조합이 후원한 것을 보고 ‘노동자끼리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무슨 정이 교류되는 게 아닌가’ 하며(124), ‘연대’를 날카롭게 포착해 낸다. 민족 범주를 넘어서는 ‘노동자 연대’를 상정하고 있다.

앞서 검토한 소설들이 일국적인 ‘민족 범주’에 갇혀 있었다면 「시효」는 ‘민족 범주를 넘어’ ‘인간의 양심을 만족시키는’(127)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민족 범주를 넘어설 때 ‘친일’ 범주는 더 이상 기본모순도 주요모순도 아닐 수 있다. 노동자 연대라는 「시효」의 제3방안은 일국적 단계에서 벗어나 세계자본

47 김복순,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특집 및 권두언을 중심으로」, 앞의 글, 255쪽.

주의체제로 문제인식을 확장하면서, 자본-노동 관계를 기본모순으로 설정한다. 『청맥』의 경제기획이 ‘자주적인 내포적 공업화’<sup>48</sup>였음을 떠올릴 때,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노동자 연대는 『청맥』의 제5계보가 강조하는 ‘자주적인 내포적 공업화’ 밖의 세계적 변화까지 포착하는 날카로움이 있다.

「회전」(강금중<sup>49</sup>, 27호)은 「시효」에서 웅변적으로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던 ‘제3 방안’을 직접적으로 형상화해 보여 준다. 노동자 연대가 자본주의 체제를 기본모순으로 보는 관점이라면, 「시효」에서 드러난 제3방안은 반(反)식민적 관점에서 농촌 근대화를 역설한다. 월남 청년 이성민은 S대 재학 중 군대를 피하다가 끌려가는 신세가 된다. 제대후 잡지사 기자로 일하지만 곧 실직자가 된다. 친구로부터 대학 동창인 준성이 농촌에서 특수작물 등을 재배하면서 농촌계몽에 앞장서고 있다는 말에 호기심이 생겨 내려가 본다. 50년대말에서 60년대초의 우리 사회의 빈곤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면서, 준성이 이룩해 놓은 농촌개혁상에 깜짝 놀라게 된다. 4H구락부를 만들어 농촌부흥에 기여한 준성의 삶에 감동되어 함께 만들어가기로 결심한다.

이 소설의 ‘방법’은 『청맥』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청맥』의 경제기획은 ‘농촌 근대화’라기보다 ‘자주적인 내포적 공업화였다’. 그런데 작가인 강금중은 『한양』의 단골 필자였다. 『한양』의 근대화 기획의 기초가 ‘농업 근대화’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소설의 이질성을 이해할 만하다. 『한양』은 당대의 근대화론이 서구적 근대화론에 치우쳐 있음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농업 근대화를 주체적 근대화 기획의 ‘기초’로 설정한 바 있다.<sup>50</sup>

48 앞의 글.

49 강금중은 『한양』에 많은 발표를 한 작가로서, 이 소설은 『한양』의 방안인 ‘농촌 근대화’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50 고명철은 ‘중농주의’가 『한양』의 근대화 기획의 핵심이라 보고 있으나, 필자는 다르게 입증하였다. 『한양』의 근대화 기획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양』에 나타난 ‘자이니치 디아스포라’의 리저널리즘 계보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2022S1A5A2A01038140)(3년 과제)의 1차년도 연차보고서(2023.4)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중농주의에 대해서는 고명철, 「민족의 주체적 근대화를 향한 『한양』의 진보적 비평정신」, 민족문학연구소 저, 『영구혁명의 문학들』, 국학자료원, 2012, 85-86쪽.

2.5에서와 마찬가지로 탈식민 노동자 연대에서나 농업 근대화에서 여성(성)은 제거되어 있다. 여성성은 비가시화된 채 ‘노동 일반’이 남성성으로 전유되고 있었다. 이는 71년에 발표된 황석영의 『객지』에서도 마찬가지<sup>51</sup>였음을 감안할 때 한계라 보기는 어렵다. 탈식민 계열의 소설에서 확인되는 특징은, 다른 계열에서와 달리, ‘근대’가 일관되게 남성젠더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청맥』에서 근대의 젠더는 ‘남성(아버지)이 아닌 것은 아닌 남성(아들)’과 고발, 폭로, 저항의 주체로서의 여성이었다면, 탈식민의 젠더는 남성으로 제한된 특징이 드러난다.

### 3 대항공론장으로서의 『청맥』의 소설: 민족적 리얼리즘의 성취

우리는 국가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익히 경험해 왔다.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립을 배제, 거부하면서 스스로 구속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피지배계급에게 직간접적으로 각종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저 유명한 헌법 제1조 제2항의 문구에서조차 ‘국민’의 함의는 매우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전체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민족주의의 기묘한 결합이 도처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보편 만들기’의 시대에, 가장 혁신적인 잡지 『청맥』이 만들고자 한 ‘보편’은 어떤 것이었나 검토해 보았다.

『청맥』의 소설은 이승만 정권 시기로부터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등장한 이후까지, 즉 ‘상시화된 예외상태’와 ‘국가폭력의 백화점’이었던 50-60년대에 이 사회에 만연한 (국가)폭력을 비판·고발한다. 60년대 잡지 중 『청맥』만큼 국가폭력에 집중한 잡지는 없었다. 『청맥』의 소설에 드러나는 폭력의 형태는 법살(法殺), 쿠데타, 국가보안법, 불공정재판, 경찰서 및 군대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폭행치사, 정치적 살인, 민간인 집단학살, 정치적 실종, 강요된 자살, 주한 미군에 의한 폭력, 간첩방조죄, 지역주의, 월남인에 대한 연좌제, 세대간 폭력,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등 놀랍도록 다양하고 구체적이다.

51 김복순, 「국가비상사태선언 전후 ‘불평등 정당화/해소’의 방법적 전환」, 앞의 글, 참조.

『청맥』의 소설에는 군대, 경찰, 정부 이데올로기 등의 국가장치에 의해 국민 또는 시민사회의 영역이 점점 축소되면서 공포의 대상으로 위치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새롭게 이 나라를 만들어줄 ‘제3방안’을 요구하면서, 군대·경찰 등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국가폭력을 열정적으로 고발하였다. 5.16도 ‘혁명’이 아닌 ‘국가폭력’으로 호명하면서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의 두 축인 ‘광적 민주주의’와 ‘잘못된 애국심’ 때문에 빚어지는, 국가폭력이 일상화된 당대의 현실을 등장시킨다. 이처럼 『청맥』의 소설은 이승만 정권, 5.16이라는 극우반공체제의 확립과정과 국가폭력 형성과정의 호몰로지를 보여준다.

또 『청맥』의 소설은 필화사건, 노동파업, 데모 등을 ‘불온’으로 다루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불온’ 프레임 또한 일종의 폭력임을 역설하면서, ‘제3방안과 연결지어 논의하려는 태도를 읽을 수 있었다. 『청맥』의 소설은 당대의 현실을 날카로우면서도 리얼하게 고발함으로써 민족적 리얼리즘의 성취를 보여 주었다.

당대 사회의 제 부면에 대한 비판은 이전 소설에서도 부분적으로 제시되어 왔지만, 『청맥』의 소설은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이 사회에 만연한 국가폭력, 부패, 비리에 대한 ‘질적 변환’ 및 ‘양적 증가’를 제시하면서 이를 정면에서 비판하고 있었다. 『청맥』의 소설은 적어도 ‘안전하게 아픈’ 비평적 외침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또 『청맥』의 소설들은 이전 시대의 소설이 보여준 ‘희생자 중심’성에 머물지 않고 ‘가해자를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소설사적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5.16을 본격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청맥』은 차별성이 있다.

특히 『청맥』 소설의 여주인공들은 이러한 국가장치들이 발휘하는 통치기술을 내면화하기보다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이를 뒤엎는데 자발적으로 가담한다.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새로운 시(국)민성이 여성성을 통해 담보되는 특징을 보인다. 새 시대의 신도덕 원리를 제창한 것은 남성이었는데, 즉 담론에서도 확인되었듯 ‘남성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살해’를 통해 ‘아버지’를 넘어서는 ‘아들’ 세대의 남성이었다. 하지만 『청맥』에서 남성 주체의 실천은 ‘사변적’으로 전개될 뿐 행동으로 전개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이처럼 『청맥』에서 근대의 젠더는 ‘고발, 폭로, 저항의 주체로서의 민중-여

성'과 '남성이 아닌 것은 아닌 남성'이었다. 민주주의적 근대화, 근대 국가 건설의 원동력이 '민중-여성'에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이전 소설과 질적으로 결별한다.<sup>52</sup> 이전 시기의 소설에서처럼 여성을 '수난'의 상징 또는 수동적 인물로 처리하지 않았다. 새 시대 이념의 희망적인 담지자, 민중성의 여성젠더화, 보복하는 여성성은 『청맥』 이외의 소설에서는 찾기 힘든 설정이다. 오히려 여기서는 유능/무능=남성/여성=포용/폭력의 성적 은유보다 가해/피해의 측면에서 여성/남성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이는 통상적인 남성 주체 호명과 다른 '역전된' 방식이며, 50-60년대의 그 어느 작품에서도 보기 힘든 『청맥』의 차별성이다. 젠더를 검토한다는 것은 당대의 제 모순(불평등)에 대한 인식 정도를 가늠하는 것으로서, 이로써 『청맥』의 진보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60년대 소설은 50년대와 70년대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에 그치는가'<sup>53</sup>라는 문제가 제기된 지도 벌써 20년이 흘렀다. 그간의 평가에서 60년대 문학은 '주체성의 복원'과 '성찰'의 서사라 강조되면서도, '성찰'에 머물 뿐 '실천'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평가는 『청맥』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것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청맥』은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제5계보에 해당하는 담론 및 여성문학비평적 민족문학론을 제시한 바, 소설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속되어 있었다. 『청맥』의 소설을 지배한 문제의식도 진정한 근대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란 어떤 것인가와 직결되어 있었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 국가폭력이 아닌 법치, 인류애라는 조국애, 인간다운 사랑이 존재하는 물화가 아닌 사회,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등이 『청맥』의 소설이 피력하는 바, 아시아 리저널리즘 제5계보의 소설적 형상화에서 요청된 전망의 내포이다.

『청맥』의 소설들은 50-60년대 아시아·아프리카 리저널리즘의 최대 약점으

**52** 물론 잡지이기 때문에 태작도 있으며, 또 모든 소설에 일관되는 동일한 지향성 및 형상화가 목도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성과 관련해서도 「육체의 천사」에서는 '무서운 어머니'로, 「건」에서는 단지 주인공의 성장에 요청되는 '겉탈의 대상'으로, 「비약 이전」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의 수난자'로 형상화되어 있다.

**53**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5쪽.



로 비판된 ‘민주에서 괴리된 독재’ ‘새로운 민족주의로서의 독재’가 내포한 부패, 비리, 국가폭력의 부당성에 대해 60년대 그 어느 잡지, 소설보다도 가장 공격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었다. 그럼으로써 민주주의, 자유, 평등의 개념이 각 영역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무너지는지, 각 개인들이 그 디스토피아를 어떻게 돌파하(지 못하)는지를 리얼하게 보여주었다. ‘민족적 리얼리즘의 성취’를 뚜렷이 확인시켜 주고 있었으며, 문학비평과의 정합성이 확인되었다. 『청맥』은 소설에 있어서도 ‘이미 60년대 중반’에 대항공론장<sup>54</sup>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이것이 제3세계-한국-『청맥』이 선택한 ‘아시아 리저널리즘 제5계보’의 차별성이자 특징이었다.

『청맥』의 소설로 인해 60년대 소설은 비로소 50년대 전반 소설의 주요인 허무주의, 비판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50년대 후반 소설의 ‘더 이상 아닌’(no-longer) 상태에서도 온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잡지이기 때문에, 실천 양상 및 전망이 단일 대오로 전 소설에 걸쳐 일관되게 설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봄비와 더불어」에서의 어머니는 민중성의 담지자로 형상화 되어 있었지만, 「혁명 후기」에서의 아내에게는 ‘실천’이 약화되어 있었다. 아직 변혁적 움직임이 계속 진행 중인데다 실천이 가능할 만큼 합리적 판단이 충분치 않았던 탓에, 5.16 이후의 사회는 ‘주인공의 능력 바깥에 위치’한 부분이 있었다. 주인공의 ‘광기’는 이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시키는 부분이다. 「봄비와 더불어」 「테러조작설」 등에서의 여성 주인공이 ‘고발’ ‘폭로’의 주체로 나서면서 당대에 저항하는 인물이라면, 「혁명 후기」에서 5.16은 간접적으로 거부될 뿐이기 때문이다. 즉 아내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동적으로 ‘복수’를 일깨우고 있을 뿐, 사회에 대한 저항과 실천을 직접적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못했다.

50년대 후반의 소설이 50년대 전반 소설의 ‘아직 아닌’(not-yet) 상태에서 벗어나 ‘더 이상 아닌’(no-longer)의 상태로 전환되었다면,<sup>55</sup> 『청맥』의 소설은 ‘더 이상 아닌’(no-longer) 상태에서부터 확실한 질적 전환을 이룩해 내고 있었다.

54 이남희, 이경희·유리 옮김, 『민중만들기』, 후마니타스, 2015, 1-518쪽, 참조

55 하정일, 「주체성의 복원과 성찰의 서사」,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앞의 책, 13-43쪽.

그 결과 제3방안의 소설적 내포라 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 ‘국가폭력이 아닌 법치로 운영되는 국가’ ‘인류에라는 조국애’ 등을 제3방안의 ‘내포’로 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설적 실천이 고발, 폭로에 머물러 있고, 광기, 구역질, 현기증 등으로 형상화되어 있어 구체적 전망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민족주의의 폭력성을 용인하고 반공 냉전으로 육화된 적극적 여성(보복하는 여성)을 제시하는 등 진정한 탈식민적 성찰로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것이 『청맥』 소재 소설의 특징이자 한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4.19의 문학적 결실이 온전히 가능해진 것도 70년대에 들어서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부분은 약점이라 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청맥』의 소설로 인해 60년대 소설사는 다시 씌어야 한다. 『청맥』의 소설은 민족적 리얼리즘을 형상화해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미 『창작과 비평』의 업적으로 평가된 민족주의론, 리얼리즘론을 선취하고 있었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청맥』(1964.8-1967.6)

### 단행본

- 권현익, 『또 하나의 냉전』, 민음사, 2013, 1-189쪽.
- 김동춘, 『전쟁정치-한국정치의 메카니즘과 국가폭력』, 길, 2013, 73-74쪽.
-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선인문화사, 2009, 46-47쪽.
-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15-25쪽.
- 김은하, 『개발의 문화사와 남성 주체의 행로』, 국학자료원, 2017, 1-384쪽.
- 민족문학사 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15쪽.
- 박태순·김동춘, 『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7, 142쪽, 215-240쪽.
- 배은경 외, 『조국 근대화의 젠더정치』, 아르케, 2015, 1-307쪽.
- 변광배, 『폭력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세창출판사, 2023, 287-316, 371-298쪽.

- 조현연, 『한국현대정치의 악몽—국가폭력』, 책세상, 2003, 21쪽, 25-30쪽.
-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읽는 책, 2002, 1-549쪽.
- 조희연 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 책, 2003, 125쪽.
- 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과 매체의 전략』, 소명출판, 2008, 1-214쪽.
- 허윤, 『남성성의 각본들』, 오월의봄, 2021, 325-362쪽.
- 이남희·이경희, 유리 율김, 『민중 만들기』, 후마니타스, 2015, 1-518쪽.
-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율김, 『근대성의 젠더』, 자음과모음, 2010, 1-439쪽.
- 마루카와 데쓰시, 백지운·윤여일 율김, 『리저널리즘』, 그린비, 2008, 17-56쪽.
- 미셸 푸코, 이규현 율김, 『광기의 역사』, 나남, 2003, 2020, 575-616쪽.
-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김희진 율김, 『실재의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음과모음, 2018, 157-186쪽
- 아마티아 센, 김원기 율김, 『자유로서의 발전(Development As Freedom)』, 갈라파고스, 2013, 39-148쪽, 399-419쪽.
- 안소니 기든스, 진덕규 역, 『민족국가와 폭력』, 삼지원, 1991, 1-462쪽.
- 오드 아르네 베스타, 오강준 율김, 『냉전의 지구사』, 에코리브르, 2020, 1-805쪽.
- 우르술라 리히터, 손영미 율김, 『여자의 복수』, 다른우리, 2002, 20-24쪽, 121쪽.
-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율김,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1-279쪽.
- 제이슨 스탠리, 김정훈 율김, 『우리와 그들의 정치—파시즘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솔, 2022, 1-305쪽,
-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율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1-353쪽, 참조.
- \_\_\_\_\_, 김향 율김, 『예외상태』, 새물결, 2009, 1-190쪽.
- 질베르 리스트, 신해경 율김,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 책, 2013, 123-126쪽.
- 찰스 젤린저, 이상보 율김, 『폭력 계보학』, 카리스 아카데미, 2022, 1-266쪽.
- 폴 토마스 체임벌린, 김남섭 율김, 『아시아 1945-1990』, 이데아, 2023, 5-16쪽.

#### 논문

- 강성현, 「한국의 국가형성기 ‘예외상태 상례의 법적 구조」, 『사회와 역사』 제94집,

- 2012, 87-128쪽.
- 고명철, 「민족의 주체적 근대화를 향한 『한양』의 진보적 비평정신」, 민족문학연구  
 구소 저, 『영구혁명의 문학들』, 국학자료원, 2012, 73-100쪽.
- 김복순, 「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로컬 냉전지(知)의 젠더—1950년대 『사  
 상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9호, 2013, 73-125쪽.
- \_\_\_\_\_, 「『사상계』 기행문에 나타난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재편양상과 재건의 젠  
 더」, 『여성문학연구』 제39호, 2016, 217-260쪽.
- \_\_\_\_\_, 「국가비상사태선언 전후 ‘불평등 정당화/해소’의 방법적 전환」, 『한국문  
 학이론과 비평』 제72집, 2016, 191-223쪽.
- \_\_\_\_\_,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특집 및 권두언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0호, 2020, 225-  
 270쪽.
- \_\_\_\_\_,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문학비평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3호, 2021, 294-339쪽.
- 김중근, 「분단체제 속 국가폭력과 분단 트라우마의 혼재」, 『통일인문학』 제  
 74집, 2018, 5-37쪽.
- 김주현, 「『청맥』지 아시아 국가 표상에 반영된 진보적 지식인 그룹의 탈냉전 지  
 향」, 『상허학보』 제39호, 2013, 295-336쪽.
- 박연희, 「『청맥』의 제3세계적 시각과 김수영의 민족문학론」, 『한국문학연구』 제  
 53호, 2017, 283-320쪽.
- 박홍서, 「냉전기 한국의 국가폭력과 미국의 대응」, 『통일과 평화』 제8집 1호,  
 2016, 45-78쪽.
- 손지연, 「국가폭력의 전후적 기억, 국가폭력을 내파하는 문학적 상상력」, 『일본  
 학보』 제126집, 2021, 59-80쪽.
- 이동현, 「1960년대 『청맥』 지식인 집단의 탈식민 민족주의 담론과 문화전략」  
 『역사와 문화』 제24집, 2012, 3-29쪽.
- 장세진, 「안티테제로서의 반동정신과 한국의 아시아 상상」, 『사이間SAI』 제  
 15호, 2013, 135-169쪽.
- 허선주·송은경, 「민족주의에 의한 국가폭력의 정당화」, 『남아시아연구』 제26권

3호, 2020, 63-84쪽.

홍성흡, 「국가폭력 연구의 최근경향과 새로운 연구의 모색」,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1호, 2007, 5-28쪽.

황병주,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민중인식」, 『기억과 전망』 제21호, 2009 110-149쪽.

령유, 김수현 율김, 「복수성 관리하기-냉전 초기 싱가포르 주변의 정치학」,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1』, 현실문화, 2008, 125-147쪽.

John Lewis Gaddis, *We Now know*, Oxford Univ. Press, New york, 1997, p. 293.

Nagengast, C., “violence, terror, and the Crisis of the States” i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23, p.144.

## Abstracts

Gender of Regionalism and State Violence on the Short Stories of *Chong-Mag*

Kim Boksoon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is the first full-scale study on the short stories of *Chong-Mag*. The position of *Chong-Mag* is classified as the 5th genealogy of ‘Asian regionalism’. The Method of *Chong-Mag* was the ‘third plan’. The 5th genealogy combines anti-imperialism, anti-colonialism and the theory of ‘development as freedom’.

There are 37 short stories in total. The short stories of *Chong-Mag* accuse state violence prevalent in this society in the 50s and 60s. It begins to criticize it in earnest, presenting a qualitative transformation and quantitative increase in (state) violence that was not seen in previous short stories.

In the short stories of *Chong-Mag*, the gender of modernity is the people-women as subjects of accusation, exposure, and resistance. It qualitatively differs from the previous short stories and novels. Also, it shows the characteristic of not setting the ‘gender of modernization’ as masculinity. This was a ‘reversed’ method different from the usual male subject calls. Due to the short stories of *Chong-Mag*, the history of short stories in the 60s must be rewritten.

Key words: The Third Plan, Bandung’s spirits, theory of national realism, asian re-

gionalism, a counter public sphere, state violence, police violence, military violence, nationalist violence, national security law, spy, commie, murder of a Father, madness, 5.16, the people(minjung), disturbing frame, a new morality, retaliatory woman, postcolonialism, labor union

논문제출: 2023. 11. 15.

논문접수: 2023. 11. 23.

게재확정: 2023. 12. 07.

〈부록〉『청맥』소설 목록 (총37편)

호	발표년월	제목	작가	장르표기
1	64.8	반짝이는 것과 빛소리	白寅斌	창작*
2	64.9	맹공이 議員	吳有權	창작
3	64.11	가물	李範宣	창작
4	64.12	革命後記	南廷賢	창작
5	65.1	레바이아탄—나는 이미 내가 아니다	宋人恒	소설(표지), 창작(목차)
6	65.3	乾	金承鈺	창작
		肉體의 天使(1部)	朴敬洙	
7	65.4	飛躍以前	宋炳洙	창작
8	65.5	西水庫驛前 風景	李浩哲	창작
9	65.6	봄비와 더불어	姜龍俊	창작
		銅版畫 幻滅	姜好武	
10	65.7	別莊이 있는 風景	韓南哲	창작
		들놀이	金承鈺	
11	65.8	生日招待	李浩哲	창작
		그래그래	吳泰錫	
		零點零詩(其一)	玄在薰	
12	65.10	없음		
13	65.11	긴 겨울 밤	朴敬洙	창작
14	65.12	센티멘털리스트	徐升海	창작
15	66.3	亥	白寅斌	소설(표지), 창작(목차)
		化石	宋相玉	
16	66.4	바람속에서	河瑾燦	창작
17	66.5	밤 사람들	慎憲宰	창작
18	66.6	리마따의 白痴	李丙求	소설(표지), 창작(목차)
19	66.7	詐欺師	金龍雲	창작
20	66.8	野蠻人	吳榮錫	창작
		公衆便所近處	梁文吉	
21	66.9	歸鄉	宋相玉	창작
		테러造作說	吳榮錫	
		바닷가사람들	李清俊	
22	66.10	어이없는 1幕	鄭乙炳	창작
		七面鳥	金龍雲	
23	66.11	떠나는 사람들	吳有權	소설
		울안의 王國	白龍雲	
24	67.3	없음		
25	67.4	時效	沈在彦	소설
26	67.5	異族	金成弼	소설
27	67.6	恐慌地帶	朴錫濬	소설
		回轉	姜金鍾	

\* 장르표기 상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것은 표지와 목차가 동일한 경우임.